

# 정부 오염수 검토보고서 오늘 발표... 日에 제안도 담겨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술원 분석·시찰단 자료 공개 우리 정부 최종 입장도 함께 밝혀 IAEA 총장 방한 외교 장관 면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내일 이(일일브리핑)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에 더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 장을 맡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동석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RA는 내일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종료증은 사실상 오염수 해양배출 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합격증'을 뜻한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 산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과거 소송 재개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바 있다.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는 7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8일에 유국희 원안위원장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담아 면담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 원희룡 "野 날파리 선동 원인 제거" "노선 필요하면 다음 정부서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며 "공무원을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이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불을 사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원에 불과하고,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도 늘어난다"며 "중점이 되더라도 대통령 처가 토지 지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제약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에서는 김 의원과 강대식 서법수 유경준 정동만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윤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유인촌 전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유 신임 문체특보는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으며 TV 텔런트와 연극배우, 연출가 등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이명박(MB)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문화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조흥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로 통해 밝혔다.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는 고광호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회 전북익산군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오광록 기자 kroh@

## 윤 대통령 지지율 38%...2주만에 2%p 상승

### NBS...국힘·민주 지지율 격차 줄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엘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1%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 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4%p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보

다 1%p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3%p 오른 28%였다. 직전 조사에서 10%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6%p로 줄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6%였고,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p다.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jeonnam job platform

# 전남 일자리를 플랫폼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T.061-750-7736

일자리종합센터  
T.061-750-7700

전남일자리플랫폼  
인스타그램QR